

2010 수능

예상점수 활용 '맞춤지원 전략' 세워야

■ 대입, 진짜는 이제부터 ... 수능 이후 대비

같은 정시라도 전형 요소 면밀 검토
내신중요 ... 기말고사 소홀해선 안돼

2010학년도 대입수능능력시험이 끝나지만,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수능까지 대입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면 진짜 입시는 수능 이후부터이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진학의 달인'으로 통하는 김재근(사진) 광주시교육청 진학정보팀장의 도움말로 수능 이후 대입 전략법을 살펴본다.



점 결과를 활용해 지원하려는 모집단위를 결정하는 일이다. 우선 자신의 수능 예상 원점수를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수능과 학생부, 대학별고사 등 전형요소를 바탕으로 정시모집에서 지원할 대학을 3~4개 정도 정리해둔다. 정시모집에서는 '가·나·다' 등 세 차례의 복수지원 기회가 있다.

지원 대학을 결정했다면 모집군별로 적절히 조합해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소신·적정·안정 지원 식으로 지원 전략을 짤다. 지원대학에서 '가·나·다' 등 세 차례의 복수지원 기회가 있다.

지원 대학을 결정했다면 모집군별로 적절히 조합해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소신·적정·안정 지원 식으로 지원 전략을 짤다. 지원대학에서 '가·나·다' 등 세 차례의 복수지원 기회가 있다.

■ 11월에 실시하는 대학별고사 일정

Table with 2 columns: Date and University/Exam Name. Includes dates from 14th to 29th and various university exams.

학생부를 중심으로 논술 및 면접, 서류평가 등 다양한 전형요소가 활용되는 수시모집과 달리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같은 정시라도 대학별로 수능·학생부·면접 등 전형요소 반영 비율이 제

각각이므로 지방하는 대학과 모집군의 전형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모집인원의 20~70%를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한다. 또한 수능성적만 100% 반영하는 전형은 수능 우선선발 전형에 비해 모집인원이 적고 특목고생, 재학생들의 지원이 많아 경쟁률과 합격점수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수능 이후 수시 원서 접수 대학 공략=수시 2-1차 합격자라면 가점 점수에 근거해 논술 응시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수능 이후 수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파악해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수시모집 대학은 교과 성적으로 5~10배수를 선발해 논술, 면접으로 최종 선발하는 만큼 논술에 자신있는 학생들이 도전해 볼만하다. 다만 정시에서 충분히 합격 가능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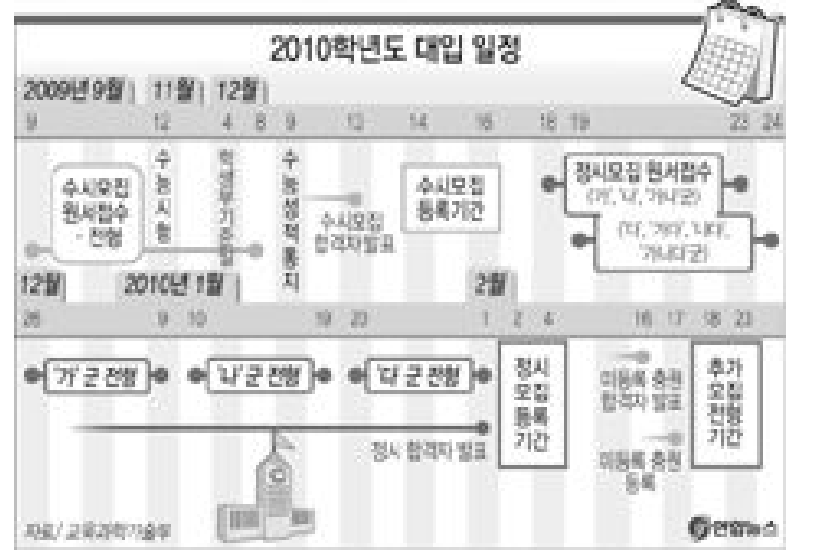
◇수능 최저학력기준 확인해야=

다양한 전형요소가 활용되는 수시모집이라도 서울지역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대부분 일정 등급 이상의 수능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설정해 학생을 선발한다. 2008학년도 고려대 수시 일반전형에서는 전체 지원자의 34.5%가 수능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상을 받지 못해 탈락한 경우도 있었던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내신 성적도 끝까지 관리=수능 이후 각 학교에서 실시되는 기말고사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 2010학년도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12월 4일이기 때문에 2학기 기말고사 성적 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의 실적도 이 때까지 모두 기록된다.

학생부는 정시전형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는 점과 특히 상당수 대학에서 고교 3학년때 성적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만약 재수를 하게 될 경우 내신 수시모집에서 전 학년 성적이 반영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수능 이후 지원 가능한 수시모집 대학

Table with 4 columns: Date, University, Admission Type, and University Exam Admission Type. Lists various universities and their exam details.

■정시 수능 100% 반영대학

Table with 6 columns: University, Admission Type, Admission Ratio, Admission Method, Admission Ratio, and Admission Method. Lists universities with 100% entrance exam weight.

■정시 수능 우선선발 대학

Table with 6 columns: University, Admission Type, Admission Ratio, Admission Method, Admission Ratio, and Admission Method. Lists universities with priority selection based on entrance exam scores.

당장 논술고사도 준비 하라

14일부터 성균관·중앙대 등 실시

대학수능능력시험이 끝나면 당장 이번 주말(14~15일)부터 성균관대, 중앙대를 시작으로 수시 2차 논술고사가 줄줄이 이어진다.

시험에 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데다 논술을 보는 상당수 주요 대학이 60% 이상의 높은 반영 비율을 정해놓고 있어 집중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논술고사 실시 일정=대다수 대학의 수시 논술 일정은 11월에 몰려 있다.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서울여대 등이 모두 이달에 본다. 정시 논술은 서울대, 서울고대, 춘천고대와 일부 신학대가 내년 1월 치를 예정이다.

수능이 당락을 좌우하는 정시와 달리 서울대를 제외한 주요 대학 수시모집에서 논술 비중은 매우 크다. 수시모집에서는 대부분 대학이 '학생부+면접'을 기본으로 여기에 논술 점수와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을 반영한다.

◇효과적인 논술 대비법=기술 문제의 중요성은 논술에서도 유효하다.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본인이 지원한 대학의 기술문제와 올해 모의 논술문제를 직접 풀어 보고 철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같은 주제의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문제 구성방식은 대동소이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은 모의 논술시험을 볼

것을 조언한다. 유웨이중앙교육은 "무엇보다 출제자가 논제를 통해 무엇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훈련을 반복해 실수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합논술의 논제는 과정 중심의 세트형으로 출제된다. 특히 요약, 비교, 대조, 비판 등의 논제는 제시문과 문제에 대한 이해력과 독해력을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반드시 제시문을 꼼꼼하게 따져 읽는 훈련을 해둘 필요가 있다.

교과서 학습활동 문제를 통해 논술 기본기를 다지고 교과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현안과 이슈도 점검하는 것이 좋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Real estate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수원롯데마트바로 옆 수원아울렛.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 shopping mall area.

대인동삼일부동산.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ong Samil Real Estate.